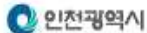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5월 31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도서지원과	담 당 자	• 해양환경팀장 권익범 ☎440-4891 • 담당자 황경찬 ☎440-4894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살리는 즐거움! 해양쓰레기 줄이고 · 줍자!”
인천시, 범시민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추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매월 해안쓰레기 수거 활동 예정 -
 - 바다의 날 맞아 선언문 · 실천강령 발표, 플로깅하며 캠페인 시작 알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은 5월 31일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함께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맹성규 · 배진교 국회의원, 정원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과 시민들, 전창협 (주)헤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바다를 살리는 즐거움 줄·줍·즐 GO, GO, Enjoy 캠페인’ 선포식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 “바다를 살리는 즐거움 줄 · 줍 · 즐 GO, GO, ENJOY” :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줍고, 이후 깨끗한 바다를 즐기자

이어 바다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참석자들이 다 함께 ‘바다를 살리는 즐거움’ 선언문 · 실천강령 발표, 바다지킴이 바르게 추진 위원장 위촉, 선포 기념 퍼포먼스 · 플로깅 행사를 추진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주)헤럴드와 손잡고 이번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매월 전국 각지에서 해안 정화 활동 전개와 온라인을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주기적인 해안 정화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해안 정화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시는 중구 삼목항 주변과 영흥도 진여부리 해변에서 자원봉사자 및 지역 기업·단체들과 해안 정화 활동을 추진했으며 해양환경정화선을 활용해 상공경도, 어평도 등 무인도 해양쓰레기 7톤 가량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선언과 친환경 정책 대전환 추진에 동참해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환경특별시 인천의 비전에는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바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가 인원을 100인 이내로 제한했으며,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적정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